

안방 두산戰 ‘흔들고’, 원정 삼성戰 ‘버티고’

KIA 주간 전망대

두산 도루 저지율 최하위·상승세 삼성·맞춤형 전략으로 맞붙 박재현·김도영·박상준 ‘펼 펼’...황동하 호투 ‘긍정의 에너지’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중위권 경쟁 속에서 중요한 한 주를 맞는다. 상위권 추격을 위해 이번 6연전 역시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

11일 기준 KIA는 37경기 17승 19패 1무, 승률 0.472로 공동 5위다. 선두 KT와는 65경기 차다.

지난주 성적은 3승 3패 반타자. 크게 밀리지도, 치고 올라서지도 못했다. 문제는 선두권과의 간격이 좁아져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주엔 공동 5위 두산, 3위 삼성을 차례로

프로야구 팀별 순위

(10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T	23	12	1	0.657	0
2	LG	22	14	0	0.611	1.5
3	삼성	21	14	1	0.600	2
4	SSG	19	16	1	0.543	4
5	KIA	17	19	1	0.472	6.5
6	두산	17	19	1	0.472	6.5
7	한화	16	20	0	0.444	7.5
8	NC	15	20	1	0.429	8
9	롯데	14	20	1	0.412	8.5
10	키움	13	23	1	0.361	10.5

만난다. 일단 현재 자리를 지켜내는 게 우선이다.

KIA는 12일부터 휴에서 두산과 주중 3연전을 치른다. 당장 첫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두산은 최근 타선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주 팀 타율 0.222로 리그 9위, 득점권 타율은 0.146으로 최하위였다. 공격 연결이 끊기고, 찬스에서 집중력도 떨어졌다.

반면 마운드는 안정적이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ERA) 3.29로 리그 2위. 선발 ERA는 3.94로 3위, 불펜 ERA는 2.42로 1위였다. 타선 부진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배경이다.

약점은 배터리 수비다. 두산의 도루 저지율은 10.7%로 리그 최하위다. 상대 주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KIA 입장에선 박재현의 기동력을 활용해보려 한다. 반대로 KIA 역시 리그 도루 2위 박찬호의 발을 경계해야 한다.

이어 주말에는 3위 삼성과 맞붙는다. 6연전의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쏠린다.

삼성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최근 7연승이다. 2



김도영

위 자리를 넘볼 만큼 기세가 매섭다.

가장 돋보이는 건 투수력이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1.67로 리그 1위. 선발 ERA는 1.21로 가장 낮았다. 불펜 역시 2.70으로 2위다. 경기 후반에도 쉽게 틀을 내주지 않는다.

수비 안정감도 강점이다. 삼성의 시즌 실책은 18개로 리그 최소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 자체가 적다. 경기 운영이 단단하다.

타선 역시 만만치 않다. 시즌 팀 타율 0.272로 리그 4위, 출루율 2위다. 지난주 팀 타율도 0.284로 3위였다. 투타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재현

KIA로선 얼마나 짜임새 있는 전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최근 방망이가 꾸준하지 않다.

지난주 팀 타율 0.257로 7위, 득점권 타율은 0.250으로 6위였다. 공격 흐름이 들쭉날쭉하다. 그나마 장타력은 여전히 좋다. 시즌 팀 홈런 41개로 리그 1위다.

마운드는 더 불안하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5.77로 공동 8위. 특히 선발 ERA가 7.09까지 치솟았다.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가 반복됐다. 불펜도 4.44로 상대적으로 버티지만, 선발전 안정감 회복이 가장 시급



박상준

(KIA 타이거즈 제공)

하다.

다만 황동하의 호투는 긍정적이다.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와 승리를 챙겼다.

공격에선 단연 박재현의 활약이 눈에 띈다. 지난주 3홈런에 3경기 연속 멀티히트, 결승타 2개와 타율 0.458로 필필 날았다. 김도영 역시 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상준이 공수에서 활약을 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두산전은 흔들어야 하고, 삼성전은 버텨야 한다. 기동력으로 상대 허점을 공략하고, 선발이 초반을 지켜야 한다. 지금 KIA에 필요한 건 결과다. /주홍철 기자



11일 광주체육중 강당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 선수단 결단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내빈들이 선수단과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체육 빛나는 미래, 우리가 활짝 연다”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광주체육중 선수단 필승 결단식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중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광주체육중은 11일 교내 후관동 강당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민수 광주시육상연맹회장, 엄길훈 광주체육고 교장 등 내빈들과 선수·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는 결단식에서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선전을 기원하며 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주체육중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 체조, 양궁 등 17개 종목에 선수 150명과 지도자 39명 등 총 189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광주체육중은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92개의 메달(금 25·은 32·동 35개)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체육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54회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7개를 포함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중은 40여년간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 우수 선수들을 길러내는 광주체육의 산실”이라며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체육회도 학생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의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연패 끊었다...무승도 끊는다”

광주FC, 오늘 FC서울과 홈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리그 선두 FC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원정 패배 설욕에 나선다.

광주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 '하나는영 K리그1 2026' 1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9일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3월17일 김천전 이후 약 두 달 만에 값진 승점을 획득했다. 이번 무승부로 리그 8연패와 강원전 6연패를 동시에 끊어내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비록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3월14일 3라운드 전북전 이후 10경기 만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이 극복되고 버티는 힘을 갖게 됐다.

그 중심에는 골키퍼 김동화(사진)가 있었다.

김동화는 주전 골키퍼 김경민의 부상, 노희동의 사후 징계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으나 페널티킥 선방을 비롯해 안정적인 볼처리와 빌드업 능력을 선보이며 팀의 무실점을 이끔었다. 김동화는 갑작스러운 기회 속에서도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광주 골문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광주는 최근 서울과의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 5승 5패로 팽팽했다.

서울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3연속 무승(1무 2패)으로 주춤하고 있다. 특히 퇴장 징계로 수비의 핵 아잔이 결장하면서 수비 조직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은 공수 모두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선두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으로 나설 전망이기에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광주는 강원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했던



김진호가 복귀하면서 측면 수비 운영에 힘을 얻게 됐다.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과 정교한 빌드업을 앞세워 승점 3점 사냥에 나선다는 광주가 휴에서 선두 서울을 꺾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희중 기자

KIA 타이거즈, 김민수 신임 대표이사 임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신임 대표이사 임명을 단행했다.

KIA는 11일자로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김민수(사진) 부사장을 KIA 타이거즈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대표이사인 김민수 부사장은 1983년 현대에서 입사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 2019년부터는 그룹 계열사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및 해비치 C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26년에 다시 기아로 복귀해 고객경험본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민수 신임 대표이사는 브랜드·마케팅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의 인사이트를 통해 KIA 타이거즈의 브랜드 가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아 국내생산담당 및 KIA 타이거즈 대표이사를 겸직해오던 최준영 사장은 그룹 내 신규 역할을 맡게 됐다. 최준영 사장은 지난 2024년 7년만의 통합 우승 등 재임 기간 동안 구단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주홍철 기자



2026 현대 양궁월드컵 2차 대회 혼성단체전 준우승을 합작한 김우진과 오예진 <세계양궁연맹 제공>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銀·銅’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이 올해 첫 출전한 양궁 월드컵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오예진은 지난 5-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6 현대 월드컵 2차대회 혼성단체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과 팀을 이뤄 은메달을 합작했다.

오예진은 16강에서 체코, 8강에서 터키, 준결승전에서 독일을 각각 세트스코어 5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북경 중국에 3대5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오예진은 강재영(현대모비스), 이윤지(현대모비스)와 함께 나선 리커브 여자단체전 준결승에서 인도에 1대5로 패한 뒤 3위 결정전에서 스페인에 6대0으로 이겨 동메달에 만족했다.

태극궁사들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강재영이 결승에서 중국의 주징이를 세트스코어 6대2로 꺾고 정상에 차지했고, 장민희(인천시청)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단체전 우승을 합작했던 김재덕(예천군청),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으로 팀을 구성한 남자단체전은 결승에서 튀르키예를 6대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한편, 2028 LA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에서는 단 하나의 메달도 수확하지 못했다. /박희중 기자